

제주도 고문서의 이두문과 이두 연구

- 16세기 이두문을 중심으로 -

오 창 명*

〈차 례〉

1. 서론
2. 제주지역 고문서의 이두문 특징과 이두
3. 마무리

1. 서론

이 글은 기존에 알려진 제주 지역 고문서 중, 이두문으로 이루어진 16세기의 고문서를 중심으로 하여, 이두문의 특징을 살펴보고 거기에 나타나는 이두를 정리하고 국어학적인 설명을 붙이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중 하나이다. 이 글의 주 목적은 제주지역 고문서에 보이는 이두문과 제주 이외 지역의 고문서에 나타나는 이두문에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제주도 고문서 자료집 중 이두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고창석(1994)의 『沙溪里 綾城具氏 宗家の 古文書』, 강수유사발간위원회(1996)의 『美水遺事』, 제주대학교박물관(2002)에서 펴낸 『古文書集成』 등이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자료집 성격을 띠면서 아울러 연구의 성격을 띤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고창석(2001)의 『제주도 고문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외에 몇몇의 논문 등에서 고문서들이 언급되었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제주 지역 고문서든 그렇지 않든 이두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동급의 관청에서 주고받거나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으로 보내는 공문의 일종인 關, 關文, 關子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으로 보고하는 공문의 일종인 牒呈, 牒報

관청의 상관이 7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하거나 구실을 시킬 때, 또는 관부의 장이 속관에게 내리는 사령서의 일종인 帖[체], 帖紙[체지], 帖子[체자]

보고서의 개요를 따로 뽑아 原狀인 牒報나 牒呈에 첨부하여 상급관청에 보고한 書目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보내는 문서인 甘結

각 관청의 서리나 향리 등 하급 관리가 상급관리에게 공적인 일을 알리거나 문안할 때 올리는 告目

서민이나 서리 등이 관부에 올리는 소장인 所志, 이에 따른 심문조서인 招辭, 관에서 인정한 立案, 백성이 낸 소장(訴狀)이나 원서(願書)에 적는 관부의 판결이나 지령(指令)인 제지(題旨), 題辭, 題音[데깁]제깁], 본인의 다짐인 考音[다짐]

재산을 가족이나 일가붙이에게 나누어 준 문서인 分財記 또는 都許文, 재산을 합의한 문서인 和會文, 분재 목록을 기록한 衿給文記[깃급문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재산을 나누어 준 別給文記, 재산을 사고 판 문서인 田畝賣買文記 또는 土地賣買文記, 奴婢賣買文記, 自賣文記 등의 각종 明文, 相換文記의 相換記(相換文), 典當文記(典當表文, 典當文), 不忘記, 可考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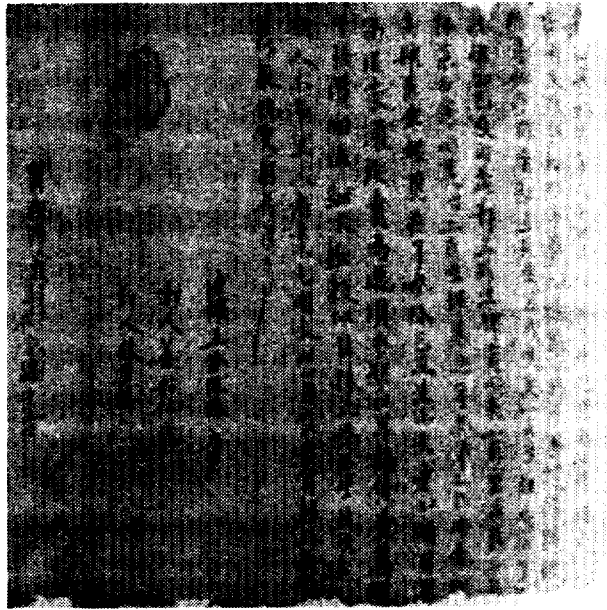
정해 놓은 법률이나 규정 따위의, 낱낱의 조항이나 항목을 적은 節目

이 글은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고문서 중, 16세기의 고문서 4개를 중심으로 거기에 쓰인 이두문의 특징을 살펴보고 거기에 쓰인 이두에 대해 해독한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지역의 16세기 이두문은 4개가 알려졌다.

- ① 嘉靖參拾柒年戊午正月拾貳日牛屯里金位恭明文(『고문서집성』 소수) - 1558년
- ② 萬曆十五年丁亥正月二十三日姜繼南處明文(장전리 강태복 씨 소장) - 1587년
- ③ 萬曆貳拾伍年丁酉拾壹月拾柒日姜應善前明文(『강수유사』 소수) - 1597년
- ④ 萬曆貳拾陸年戊戌拾壹月貳拾貳日姜應善處明文(『강수유사』 소수) - 159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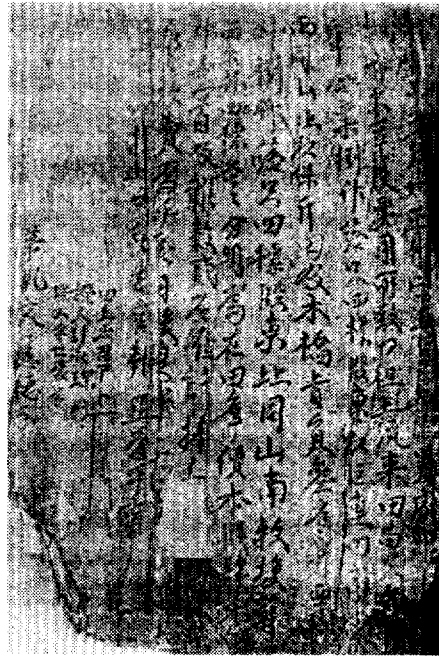
1) 帖[체]에는 差帖, 下帖, 差使帖 등이 있다.



嘉靖參拾柒年戊午正月拾貳日牛屯里金位恭明文
 右明文段今如險年資生爲難乙仍于妻邊傳得使
 用爲如乎故禿節二所生奴成失矣一所生婢成德年
 拾肆乙巳及同禿節三所生婢莫心矣一所生奴恩千年
 拾柒壬寅同莫心二所生婢恩之年拾肆乙巳同禿節
 矣肆所生婢莫莊年參拾己丑生等矣身乙明月里
 高漢豪處放賣爲遺價本肆口并楮貨壹萬肆
 千張價恒捧細木雜穀以准捧上爲臥乎後次遠近
 族人等爭望人有去等此明文內乙用良告官辨正後所生
 并以永執使用爲乎事

- 奴婢主金位恭(手決)
- 訂人姜好仁(手決)
- 訂人林連傑(手決)
- 筆執修義副尉金溫千(手決)

• 제주대학교 박물관(2002), 『고문서집성』에 원문 영인본과 활자본 수록



萬曆十五年丁亥正月二十三日姜繼男處明文
 右明文事段要用所致以祖上由來田白只員□
 庫合粟升落只四標段東奴巨連田南小路
 西同山北奴保斤田及木橋旨員參庫并粟肆
 斗捌升落只四標段東北同山南牧場築墻□
 西大林小路四標各各分明爲在田庫假本段肆禾雄
 牛壹首及雜穀貳石准計捧上爲墻□同人處
 永永放賣爲乎矣日後良中子孫中雜談
 是去等持此文記告官辨正爲乎事

田主奴召卍卜(左手寸)

證人許永琛(手決)

證人李世豪(手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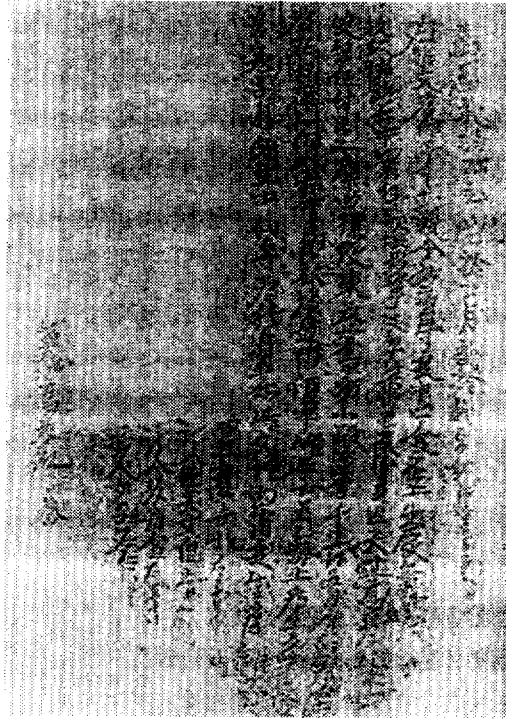
筆執文應德(手決)

- 고창석(2001), 『제주도 고문서 연구』에 활자본 수록



萬曆貳拾伍年丁酉拾壹月拾柒日姜應善前明文
 右明文事段地字國馬督促時矣身亦備納不得是白去乙
 女恩孟家累年率居使喚役價以金水川員下畝租種
 捌升付只四標段東邊水路南奴春伯西安國己田北同人畝四標
 及里內員皮牟肆斗付只四標段東路南西奴卓孫田同員皮牟
 拾斗付只四標段東奴丹千南安國己西小路北高德弘爲等如四標及家
 坐代田內外并麻子貳升付只四標段東北小路南金安泉田西奴丹
 千田壹斗浮鼎壹等乙同姜應善亦中放賣爲遣同色馬納點
 次以駟左耳穴右耳裂兩鼻裂雄馬禾一乙買得納官爲遣同田庫
 等乙永永放賣爲去乎後次吾矣族屬中相爭爲行人有去等
 此文記內乙用良告官辨正爲乎事
 田畝主良女恩孟(右手寸)
 訂人牧子奴三孫(左手寸)
 訂人婢三德(右手寸)
 訂人群頭奴夫義(手決)
 筆執金世(手決)

• 『姜水遺事』(1996)에 복사본과 활자본 수록



萬曆貳拾陸年戊戌拾壹月貳拾貳日姜應善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今如凶年良中口食還上出處無路乙仍于彭木員
 故女怪終亦中買得 田食爲如乎皮牟柴付只及同員亡夫邊同生高孝禮果相換爲在
 皮牟伍付只二庫四標段東奴丹金田南小路西曹千寶田北奴丹金田爲等如肆標分明
 爲在田庫乙同人亦中放賣爲遺價本雌牛壹首乙捧上爲去乎後次
 吾矣子息同生中相爭爲行有去等此文記內乙用良告官辨正爲乎事

田主良女千化(右手寸)

訂人良夫文自止(手決)

訂人奴丹金(左手村)

訂人女子石台

執筆高孝禮(手決)

- 『姜水遺事』(1996)에 복사본과 활자본 수록

2. 제주지역 고문서의 이두문 특징과 이두

위의 네 문서는 모두 明文이라는 이름이 달려있다. 明文은 ‘밝히는 글’ 또는 ‘밝힘글’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어떤 사실을 밝혀 증명하는 문서로, 오늘날의 證書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재산을 매도하는 證書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흔히 賣渡人이 買受人에게 넘겨주는 문서에 明文이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차용증서나 허여문기, 별급문기 등에도 明文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2.1 명문의 서두(명문의 제목)

위 네 문서의 첫 부분(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문서의 제목으로 삼는다.)을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① 嘉靖參拾柒年戊午正月拾貳日牛屯里金位恭明文
- ② 萬曆十五年丁亥正月二十三日姜繼男處明文
- ③ 萬曆貳拾伍年丁酉拾壹月拾柒日姜應善前明文
- ④ 萬曆貳拾陸年戊戌拾壹月貳拾貳日姜應善處明文

이것들은 명문의 첫부분으로, 작성연월일, 명문하는 객체(수령인) 등을 밝히고 있다. 작성연월일의 경우, 중국 연호와 간지, 월일 등을 밝힌다.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는 처음부터 명(明)나라의 제후국을 자인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연호를 쓰지 않고²⁾, 중국 연호를 사용했다. 연월일을 쓸 때는 정상적인 한자로 쓰기도 했지만 대부분 속자(俗字)를 즐겨 썼다. 이는 획을 더하는 부정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했을 것이다. 작성연월일(중국 연호와 간지, 월일 등)을 밝힌 다음에는 문서 수령인이 속한 마을 이름과 수령인의 성명을 적는다. 문서에 따라 수령인의 속한 마을을 밝히지 않기도 한다. 수령인의 성명 뒤에는 문서 수령자에게 준다는 뜻은 가진 處

2) 그러다가 청나라가 청·일전쟁에 패배하여 중주국 행세를 못하게 되자 음력으로 1895년 11월 17일을 양력으로 고쳐 개국 505년 1월 1일로 쓰면서 독자적으로 건양(建陽)을 연호로 사용하였다.

또는 前, 또는 이두로 亦中(여희: 에게) 등을 쓴다. 處는 '곳, 위치'의 뜻을 가진 한자로, '-에게' 정도로 해석된다. 前은 '앞'의 뜻을 가진 한자로, '앞에', '에게' 정도의 뜻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명문은 모두 수령인의 이름을 밝혔으나, 특이하게 첫 번째 명문은 명문하는 주체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處나 前, 良中 등의 말을 쓰지 않았다. 곧 奴婢 主人 金位恭이 매수인인 高漢豪에게 명문하는 것인데, 특이하게 '김위공이 밝히는 글'이라고 되어 있다.³⁾ 서두의 맨 마지막에는 보통 明文이라고 쓰는데, '밝히는 글' 또는 '밝히는 문기' 정도로 해석된다. 명문은 재산의 매도인이나 허여인, 별급인이 매수인이나 허여 또는 별급 받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문서에 쓰는데, ①번의 명문은 매도인 이름을 밝히고 明文이라 한 것이 특이하다.

2.2 명문의 주어

다음은 明文 전체의 주어에 해당하는 구문이 나타난다. 네 문서를 차례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① 右明文段
- ② 右明文事段
- ③ 右明文事段
- ④ 右明文爲臥乎事段

이 구문들은 명문 전체의 주어에 해당하며, 명문을 맺는 부분인 告官辨正爲乎事(고관변정호을일: 관에 알려 바로잡을 일)와 호응한다.

右는 '이미/임/우ㅎ'으로 읽히는 이두로, '위에, 위와 같이' 정도로 해독된다. 右如[이미여/이미다이] 右良[이미여/이미야]와 같이 쓰이기도 하고, 右만 쓰이기도 한다. '앞', '앞과 같이'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현대국어의 '위와 같이' 정도에 대응하는 말이다. 明文은 '문기로 밝히는/글로 밝히는' 정도로 해석된다. 뒤에 爲-가 연결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한다. 段은 '든/단'으로 읽히는 이두다. 事段은

3) 제주대학교박물관(2002), 『고문서집성』 116쪽에는 "...奴婢主人 金位恭이 牛屯里에 사는 金位恭에게 노비를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노비매매문서이다..."고 하였는데, 이는 고쳐져야 한다.

‘일썩/일썩’ 정도로 읽히는 이두이다. 爲臥乎事段/爲臥乎事段은 ‘호누온일썩/호누온일썩’으로 읽히는 이두이다. 이들은 明文과 어울려서, ‘글로 밝히는 일인 죽은’, ‘문기로 밝히는 일인 죽은’ 정도로 해석된다.

2.3 명문하는 주체와 이유

다음은 명문하는 주체와 왜 명문하게 되었는지를 밝혀 쓴다. 명문의 마지막 주체를 밝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대개 ‘이 몸은’의 뜻을 가진 矣身亦 등이 쓰인다.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명문은 주체가 생략되어 있고, 明文하는 이유만 밝히고 있다. 첫 번째 명문은 今如險年資生爲難乙仍于(지금과 같은 險年에는 資生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명문은 要用所致以(긴요하게 쓸 곳이 있는 까닭에), 네 번째 명문은 今如凶年良中口食還上出處無路乙仍于(지금과 같이 흉년에 먹어버린 환자를 내놓을 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등과 같이 이유를 밝히고 있다. 세 번째 명문에는 地字國馬督促時矣身亦備納不得是白去乙(지자의 국마를 독촉할 때, 이 몸이 비납하지 못하옵거늘)과 같이 주체인 ‘이몸이’ 國馬를 備納하지 못해서 명문한다고 하였다.

이는 ‘(으)로’ 읽히는 이두이다.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으)로’에 대응한다.

今如是 ‘열다/열다이’ 정도로 읽히는 이두다. 今 열 今 當時<훈몽-초, 하:1>. 육지부의 이두 자료에도 고려시대의 이두 자료나 15세기 이두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당시에 드물게 보이는 이두 중 하나다. 제주지역 고문서에, 그것도 16세기 노비매매문기에 나타난다는 것은 이 이두문이 매우 귀중한 이두 자료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지금과 같이, 지금처럼/지금과 같은’ 정도의 뜻을 가진다.

乙仍于是 ‘을지즈루/을지즈로’로 읽히는 이두다. 乙(을)과 仍于(지즈루/지즈로)가 결합한 이두이다. 목적격 조사 乙에 仍于가 덧붙은 것이다. 仍于是 동사어간 仍-(지줄-)에 연결어미 于가 연결된 것이다. 因 지줄 인<천자-광 10> 因 지줄 인<천자-석 10>. 엇데 썰리 오물 서르 지즈노뇨(何急來相仍)<두해-초 10:28>. 중세국어 ‘지줄다/지줄다’는 ‘잇달다, 말미암다’의 뜻이다. 乙仍于是 ‘-으로 말미암아, -때문에’ 정도의 뜻으로 쓰인다.

良中은 ‘아히>아해’로 읽히는 이두로, 현대국어의 여격조사 ‘-에게’에 대응한다. 不得是白去乙은 ‘못달이숯거늘>못질이삼거늘’로 읽히는 이두로, ‘못하삼거늘, 못

하였거늘'로 해석된다.

2.4 방매한 내용과 받은 값 또는 물건, 매수인

다음으로 방매한 내용과 방매한 결과로 받은 값과 그에 상응하여 받은 물건, 그리고 매수인 등을 밝혀 적는다.

첫 번째 명문의 방매 내용과 받은 값과 물건은 다음과 같다.

- ① 妻邊傳得使用爲如乎故禿節二所生奴成失矣一所生婢成德年拾肆乙巳及同禿節三所生婢莫心矣一所生奴恩千年拾柒壬寅同莫心二所生婢恩之年拾肆乙巳同禿節矣肆所生婢莫莊年參拾己丑生等矣身乙明月里高漢豪處放賣爲遺價本肆口并楮貨壹萬肆千張價(回俸細木雜穀以准捧上爲臥乎

아내 쪽에서 傳得하여 부리던 고 독절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성실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성덕(나이 14살, 을사생) 및 앞에서 말한 독절의 셋째 소생인 계집중 막심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은천(17살, 임인생), 앞에서 말한 막심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은지(14살, 을사생), 앞에서 말한 독절의 넷째 소생인 계집중 막장(나이 30살, 기축생) 등의 몸을 명월리 고훈호에게 放賣하고, 값어치로는 네 구를 아울러서 楮貨 만사천 장의 값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받기로 하고, 細木 및 雜穀으로 환산하여 받잡는 것이니,

매도인: 牛屯里 金位恭

방매 내용: 婢 成德(14살, 을사생) + 奴 恩千(17살, 임인생) + 婢 恩之(14살, 을사생) + 婢 莫莊(30살, 기축생) 등 4인

매수인: 明月里 高漢豪

매수 조건: 楮貨 14,000장⁴⁾ - 細木 및 雜曲으로 환산하여 받음.

爲如乎/爲如乎는 '하다운'으로 읽히는 이두다. '하던' 정도로 해석된다. 동사어간

4) 楮貨는 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돈으로,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었으나, 16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通用貨幣로 쓰이지 않고 노비나 토지 따위를 매매하는 가격의 기준 역할을 하였다. 『경국대전』에는 16~50세의 장년 奴의 값을 楮貨 4,000장, 16세 이하 51세 이상인 奴는 楮貨 3,000장으로 규정하였다. 조선 태종 때 楮貨 1장은 常五升木 1필, 쌀 2말로 정했으나, 저화의 값은 갈수록 하락하였다.(오창명, 1995:18)

爲-(ᄒ-)에 과거회상을 뜻하는 如(다)와 관형사형 어미 乎(ㄴ)가 덧붙은 형태이다.

矣는 '의'로 읽히는 이두다. 관형격조사 '의'에 대응한다.

及은 '및'으로 읽히는 이두다. 현대어 '및'에 대응한다.

同은 '오힌'으로 읽히는 이두다. 同 오힌 동<천자-광 16>. 중세어 '오힐다'는 '갈다'에 대응한다. 현대어 관형사 '동'(同)에 대응한다. 현대어 '동'은 '한자어 명사 앞에 쓰여' "앞에서 말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앞, 앞의"(1986년 ○○ 섬유 회사에 입사, 동 회사에서 3년 간 근무했음.) 정도의 뜻으로 쓰이는데, 이두의 同도 마찬가지이다.

等矣身乙은 '들회몸을'로 읽히는 이두다. 等은 중세국어 복수접미사 '들', 현대국어 '들'에 대응한다. 矣는 관형격조사 '의'에 대응한다. 身은 '몸'의 혼독자 표기로, 명사 '몸'에 대응한다. 乙은 목적격조사 '을'에 대응한다. 等矣身乙은 '들의 몸을, 등의 몸을' 정도로 해석해야 하는데, 그냥 '들을, 등을' 정도로도 해석한다.

明月리는 '멩월믄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의 한림읍 멩월리를 이른다.

爲遣은 'ᄒ고'로 읽히는 이두이다. 동사어간 爲-(ᄒ-)에 순차적 연결어미 -遣(-고)가 연결된 형태로, 중세국어 'ᄒ고'에 대응한다.

并은 '아오로'로 읽히는 이두다. 중세국어 '아을-'에 부사형성접사 '-오'가 덧붙은 형태 '아오로', 현대국어 '아을-'에 부사형성접사 '-어'가 덧붙은 '아올러'에 대응하는 말이다.

以는 '로/으로'에 대응하는 이두다.

捧上爲臥乎는 '받즈ᄒ누온'으로 읽히는 이두다. 捧上은 '받자'로 읽히고, '받잡고, 받아들이고'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爲臥乎는 'ᄒ누온'으로 읽히고, 문맥 상황에 '하는/한/하는 것이니, 하였으니' 정도로 해석된다. 동사어간 爲-(ᄒ-)에 현재 선어말어미 臥(누/느)에 동명사형 어미 乎(호/ㄴ)가 덧붙은 말이다. 이 글에서 捧上爲臥乎는 '받잡는 것이니, 받자옴는 것이니' 정도로 해석한다

두 번째 명문의 방매 내용과 받은 값과 물건은 다음과 같다.

② 祖上由來田白只貝□庫合粟捌升落只四標段東奴巨連田南小路西同山北奴保斤田及木橋
旨貝參庫并粟肆斗捌升落只四標段東北同山南牧場築□西大林小路四標各各分明爲在
田庫假本段肆禾雄牛壹首及雜穀貳石准計捧上爲遣同人處永永放賣爲乎矣

조상의 유래전인 베기믄를 지경의 □곳을 합한 줍씨 여덟 되지기(사방의 경계

표는 동쪽이 사내종 거련의 밭, 남쪽이 작은 길, 서쪽이 동산, 북쪽이 사내종 보근의 밭이다.) 및 남드리 지경의 3곳을 아울러서 네 말 여덟 되지기(사방의 경계표는, 동북쪽이 동산, 남쪽이 목장들담, 서쪽이 한술 작은 길이다.)는 사방의 경계표가 각각 분명한 밭인데, 값어치는 네 살배기 수소 한 마리 및 잡곡 두 섬으로 견주어 계산하여 받잡고 앞서 말한 사람에게 영원히 내놓고 팔았으니,

매도인: 田主奴 召口卜

방매 내용: 白只員□庫合粟八升落只 + 木橋旨員參庫并粟肆斗捌升落只

매수인: 姜繼男

매수 조건: 肆禾雄牛壹首及雜穀貳石

白只員은 '베기도래' 정도에 대응하는 이두로, 지명 표기이다. 白只는 '베기'로 애월읍 상가리에 있는 '베기마을'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員은 제주방언의 '도리, 도래' 전도에 대응하는 이두로, 현대어 '둘레' 또는 '지경' 정도에 대응하는 말이다. 白只員은 '베기마을 지경' 정도로 해석하면 무난하다.

庫는 '곳'으로 읽히는 이두로, '어떤 한정된 공간' 또는 의존 명사적 용법으로 쓰여 '일정한 자리나 지역을 세는 단위'를 뜻하는 '곳'에 대응하는 말이다. 여기서서는 후자의 뜻으로 쓰였다. 庫 또는 庫叱로도 표기된다.

升落只是 '되디기>되지기'로 읽히는 이두다. '한 되의 씨앗을 뿌릴 만한 땅이라는 뜻으로', 논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한 마지기는 보통 논 200평, 밭 300평 정도를 이르는데, 사실 이것도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다. 보통 마지기의 10분의 1 또는 4분의 1을 한 되지기로 친다.

及은 '및'으로 읽히는 이두로, '그밖에 또', '~와 함께 또'를 뜻하는 접속 부사 '및'에 대응하는 말이다.

木橋旨員은 '남드리도래' 정도에 대응하는 지명 표기이다. '남드리'는 애월읍에 있는 지명이다.

并은 '아오로'로 읽히는 이두로, '그와 함께, 그에 덧붙여' 또는 '둘 또는 여럿을 한데 합하여' 정도의 뜻을 가진 현대어 '아울러'에 대응하는 말이다.

斗는 '말'로 읽히는 이두다. 곡식 따위의 용량을 재는 단위이다.

爲在는 '호견'하견'으로 읽히는 이두로, '한' 또는 '하는' 정도의 뜻으로 쓰인다. 分明爲在은 '분명한'의 뜻이다.

田庫는 '밭곳>밭곳'으로 읽히는 이두로, 그냥 '밭'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段은 '단'으로 읽히는 이두로, '-은, -의 경우에는' 정도로 해석한다.

捧上捧上爲遣은 '받즈호고>받자하고'로 읽히는 이두로, '받잡고, 받고, 받아들이고' 정도로 해석한다.

同은 '오힌'으로 읽히는 이두로, '같은' 또는 '앞서 말한' 정도의 뜻으로 쓰인다. 이 문서의 同人은 '앞서 말한 사람', 강계남을 이른다.

爲乎矣/爲乎矣는 '호오디>하오되'로 읽히는 이두로, '하오되, 하되' 또는 '하였으니' 정도로 해석한다.

세 번째 명문의 방매 내용과 받은 값과 물건은 다음과 같다.

③ 女恩孟家累年率居使喚役價以金水川員下畚租種捌升付只四標段東邊水路南奴春伯西安國己田北同人畚四標及里內員皮車肆斗付只四標段東路南西奴阜孫田同員皮車拾斗付只四標段東奴丹千南安國己西小路北高德弘爲等如四標及家坐代田內外并麻子貳升付只四標段東北小路南金安泰田西奴丹千田壹斗浮鼎壹等乙同姜應善亦中放賣爲遣同色馬納點次以驢左耳穴右耳裂兩鼻裂雄馬禾一乙買得納官爲遣同田庫等乙永永放賣爲去乎

이 몸 은배의 집에 여러 해 거느려 살면서 부린 값으로, 짐수내 지경의 알 논 밭씨 여덟 되 부치기(사방의 경계표는 동쪽이 물길, 남쪽이 사내중 춘백의 밭, 서쪽이 안국기의 밭, 북쪽이 안국기의 논이다.) 및 마을 안의 걸보리 네 말 부치기(사방의 경계표는 동쪽이 길, 남서쪽이 사내중 조손의 밭이다.)의 사방의 경계표, 같은 지경의 걸보리 열 말 부치기(사방의 경계표는 동쪽이 사내중 단천의 밭, 남쪽이 안국기의 밭, 서쪽이 작은 길, 북쪽이 고덕홍의 밭이다.)의 사방의 경계표 및 집 앞은 텃밭 내외를 아우른 삼씨 두 되 부치기(사방의 경계표는 동북이 작은 길, 남쪽이 김안록의 밭, 서쪽이 사내중 단천의 밭이다), 한 말들이 뜬솔 하나 등을 앞에 말한 안응선에게 방매하고, 동색마를 납점한 것으로 하여, 월다말(왼쪽 귓구멍과 오른쪽 귀가 찢어지고 두 코가 찢어진 것) 암컷 한 살배기를 매득하여 납관하고, 앞에 말한 밭들을 영원히 방매하였으니.

매도인: 田畚主 良女 恩孟

방매 내용: 金水川員下畚租種捌升付只 + 里內員皮車肆斗付只 + 同員皮車拾斗付只 + 家坐代田內外并麻子貳升付只 + 壹斗浮鼎壹

매수인: 姜應善

매수(교환) 조건: 驢左耳穴右耳裂兩鼻裂雄馬禾一

金水川員은 '짐수내 도리' 정도로 읽히는 지명 표기이다. '짐수내'는 한림읍 명월리에 있는 지명이다.

升付只는 '되부치기'로 읽히는 이두로, 논밭의 면적을 헤아리는 단위의 한 가지로 쓰인다. 종자 한 되를 뿌릴 만한 논이나 밭의 넓이를 이른다.

斗付只는 '말부치기'로 읽히는 이두로, 논밭의 면적을 헤아리는 단위의 한 가지로 쓰인다.

爲等如는 '헛터러>하트러'로 읽히는 이두로, '한 것과 같이, 한 것대로' 정도로 해석된다.

并은 '아오로'로 읽히는 이두로, '아울러'에 대응한다.

等乙은 '들홀>들을'로 읽히는 이두로, '들을, 등을'로 해석된다.

同은 '오힌'으로 읽히는 이두이다.

亦中은 '여히'로 읽히는 이두로, '에게'에 대응한다.

爲遣은 '헛고>하고'로 읽히는 이두로, '하고'호 해석된다.

次以는 '츠로'는 읽히는 이두로, '것으로'로 해석된다.

乙은 '을'로 읽히는 이두로, '을'에 대응한다.

田庫等乙은 '밭곳들홀'을 읽히는 이두로, '밭들을' 정도로 해석된다.

爲去乎은 '헛거은'으로 읽히는 이두로, '하였으니' 정도로 해석된다.

네 번째 명문의 방매 내용과 받은 값과 물건은 다음과 같다.

④ 彭木員故女怪終亦中買得畷食爲如乎皮牟柒付只及同員亡夫邊同生高孝禮果相換爲在皮牟伍付只二庫四標段東奴丹金田南小路西曹千寶田北奴丹金田爲等如肆標分明爲在田庫乙同人亦中放賣爲遺價本雌牛壹首乙捧上爲去乎

팽나무 지경의, 죽어버린 딸 괴종에게 매득하여 갈아먹던, 걸보리 일곱 (?) 부치기 및 같은 지경의, 망부 쪽 동생인 고희례와 서로 바꾼 걸보리 닷 (?) 부치기 두 곳(사방의 경계표는 동쪽이 사내종 단금의 밭, 남쪽이 작은 길, 서쪽이 조천보의 밭, 북쪽의 사내종 단금의 밭이다.)은 한 것과 같이 사방의 경계표가 분명한 밭을 앞에 말한 사람에게 방매하고, 값으로는 암소 한 마리를 받아들였으니

매도인: 田主 良女 千化

방매 내용: 彭木員皮牟柒付只 + 同員皮牟伍付只二庫

매수인: 姜應善

매수 조건: 雌牛壹首

彭木員은 '폭낭 도리'의 차자표기로, '폭낭(팽나무의 제주방언) 지경의' 정도로 해석된다.

亦中은 '여히'로 읽히는 이두로, 여격조사 '-에게'에 대응한다.

爲如乎은 '하다운'으로 읽히는 이두로, '하던'의 뜻이다.

付只是 '부치기'의 차자표기이다.

及은 '밋'의 차자표기로, '밋'에 대응한다.

同은 '오힌'으로 읽히는 이두로, '앞에 말한', '같은'의 뜻으로 쓰인다.

果는 '과'와 읽히는 이두로, '와/과'에 대응한다.

爲在는 '하건'으로 읽히는 이두로, '한'으로 해석된다.

庫는 '곳'으로 읽히는 이두로, 밭이나 논 따위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段은 '든/단'으로 읽히는 이두로, '-은, -의 경우에는'으로 해석된다.

爲等如은 '하터러'로 읽히는 이두로, '한 것과 같이', '통틀어, 합하여' 정도로 해석된다.

田庫은 '밭곳'의 차자표기로, '밭' 정도로 해석된다.

乙은 '을'로 읽히는 이두로, 목적격조사 '을'에 대응한다.

爲遣은 '하고'로 읽히는 이두로, '하고'로 해석된다.

捧上爲去乎은 '받조하거온'으로 읽히는 이두로, '받잡고, 받고, 받아들이고' 정도로 해석된다.

2.5 명문의 결어

명문의 마지막에는 명문한 사람의 후손이나 족속들이 나중에 雜談하거나 爭望하는 일이 있으면 이 명문을 관에 알려 바로잡으라고 하고 있다.

① 後次遠近族人等爭望人有去等此明文內乙用良告官辨正後所生并以永執使用爲乎事

나중에 원·근 족인들이 다투어 바라는 사람이 있거든 이 明文 내용으로써 관에 고하여 옳고 그른 것을 따져 바로잡고 후소생도 아울러 영원히 가져 부릴 일.

等은 중세국어 '똥'에 대응하는 말이다.

有去等은 '있거든/있거든'으로 읽히는 이두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있거든'

에 대응하는 말이다. 去等は '어떤 일이 사실로 실현되면'의 뜻을 가진 연결 어미 '거든/거든'에 대응하는 말이다.

丙乙用良은 '안을쓰아'로 읽히는 이두다. 丙는 '안'으로 읽히고, '(문기의) 안, (문기) 내용'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乙用良은 원래 목적격조사 乙에 동사의 부사형인 用良이 덧붙은 것인데, 조사 '으로써'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면 좋다.

并以는 '아우로'로 읽히는 이두다. 동사어간 并-(아울-)에 연결어미 以(로/러)가 덧붙은 것으로, 현대국어 '아울러'에 대응하는 말이다.

爲乎事は '흐을일'로 읽히는 이두다. 爲乎事は 문맥 상황에 따라 '흐은일' 또는 '흐을일'로 읽히는 이두인데, 여기서는 미래의 일을 다짐하는 것이므로 '흐을일'로 읽힌다. 번역하면 '할 일' 또는 '할 것' 정도가 무난한데, '한다' 정도로도 번역한다. 동사어간 爲-(흐-)에 관형사형 어미 乎(은/니·크), 명사 事(일)가 덧붙은 것이다.

② 日後良中子孫中雜談是去等持此文記告官辨正爲乎事

나중에 자손 중에서 쓸데없이 지껄이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알려 바로 잡을 일.

良中은 '아히>아해'로 읽히는 이두로, 공간적 또는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에'에 대응하는 말이다.

是去等は '이거든, 이거든'으로 읽히는 이두로, '이거든, 하거든'으로 해석한다. 雜談是去等は '잡담이거든'으로 읽고, '쓸데없는 말을 지껄이거든' 정도로 해석한다.

爲乎事は '흐은일' 또는 '흐을일'로 읽히는 이두이다. '흐은일'로 읽으면 과거형이 되고, '흐을일'로 읽으면 미래형이 된다. 여기서는 후자로 읽고, '할 일' 또는 '할 것' 정도로 해석한다. 후자의 뜻으로 쓰일 때는 爲乎乙事(흐을일)로 쓰기도 한다.

③ 後次吾矣族屬中相爭爲行人有去等此文記內乙用良告官辨正爲乎事

나중에 나의 족속 중에 상쟁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 문기의 내용으로써 관에 알려 바로 잡을 일.

吾矣는 '나의'로 읽히는 이두로, '나의'로 해석된다.

爲行는 '흐녀'로 읽히는 이두로, '하는' 정도로 해석된다. 爲在(흐견: 하는)는

‘한, 하는’으로 해석되어, 과거 또는 현재를 나타낼 때 쓰이지만, 爲行은 미래를 나타낼 때 쓰인다.

有去等は ‘있거든>있거든’으로 읽히는 이두로, ‘있거든, 있으면’ 정도로 해석된다.

內乙用良은 ‘안을쓰아/안을써’로 읽히는 이두로, ‘안으로써, 내용으로써’ 정도로 해석된다.

爲乎事는 ‘하올일>하올일’로 읽히는 이두로, ‘하올 일, 할 일’ 정도로 해석된다.

④ 後次吾矣子息同生中相爭爲行有去等此文記內乙用良告官辨正爲乎事

나중에 나의 자식이나 동생 중에서 서로 다투는 일이 있거든 이 문기의 내용으로 써 관에 알려 바로 잡을 일.

吾矣는 ‘나의’로 읽히는 이두다.

爲行有去等は ‘하녀있거든’으로 읽히는 이두다. 이 목록은 지금까지 나온 이두 사전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형태이다. ‘하는 일(또는 사람)이 있거든(있으면)’ 정도로 해석된다.

內乙用良은 ‘안을쓰아’로 읽히는 이두로, ‘안으로써, 내용으로써’ 정도로 해석된다.

爲乎事는 ‘하올일’로 읽히는 이두로, ‘하올 일, 할 일’로 해석된다.

2.6 主, 訂人, 筆執

명문을 작성하고 나면 奴主나 田主의 성명을 쓰고 手決을 한다. 이어 訂人 또는 證人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성명을 쓰고 手決을 한다. 그리고 필집의 성명을 쓰고 手決을 한다.

육지부의 명문은 대개 證人 또는 證保라는 말을 쓰는데, 제주지역의 고문서에는 대개 訂人 또는 證人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육지부의 문서에서는 訂人이라는 말을 확인할 수 없다. 『한국한자어사전』이나 기타 한자 사전에서도 訂人을 확인할 수 없다. 證人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證保는 사실의 진위를 증명하여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訂은 바로잡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치다는 뜻을 가진 말이므로, 訂人인 바로잡아 고치는 사람으로, 證人과 같은 뜻으

로 쓰인 것이라 할 수 있다. 良女는 신분이 양민인 여자를 이른다.

3. 마무리

지금까지 제주지역 고문서 중 16세기의 것으로 확인된 4개의 명문을 대상으로 하여 이두문과 이두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이한 사항을 간단히 정리하고 글을 맺기로 한다.

첫째, 명문의 경우, 대개 명문의 제목이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에 중국연호, 간지, 월일, 명문을 받는 사람을 밝힌다. 그런데 ①번 명문은 특이하게 명문하는 사람을 적은 것이 특이한 것이었다. 곧 여타의 명문 같으면 ‘...에게 밝히는 글’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①번은 ‘...가 밝히는 글’ 형태로 되어 있다.

둘째, 육지부 이두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두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지역 이두문에서만 확인되는 형태는 付只(부치기)가 있다. 付只은 ‘논밭을 다루어서 농사를 짓다’는 뜻을 가진 ‘부치다’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육지부 이두문에 보이는 落只[말디기>마지기]에 대응하는 것인데, 16세기 제주지역 이두문에도 斗落이 쓰였다. 앞의 네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른 자료에서 확인되는 片[파니]도 육지부 이두문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爲行臥乎事[헛녀누온일]은 기존의 이두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형태이고, 今如[열다이] 기존의 이두사전에는 15세기 이전 자료에서만 확인되는 것인데, 제주지역 이두문에서는 16세기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거기다가 명문 두 종류에 서 今如를 확인한 것도 수확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육지부 明文에서는 今如가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첫째와 둘째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이두문 구조와 이두 형태, 쓰임, 뜻 등은 육지부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네 명문의 기본 투식은 다음과 같다.

大國(中國) 年號, 幾年, 某月 某日, 某(處, 前) 明文

右明文事段(右明文爲臥乎事段), 명문하는 이유, 방해하는 내용, 가격, 捧上, 後次雜談, 告官辨正爲乎事

主 某(수결), 訂人 某(手決), 筆執 某(手決)

〈참고문헌〉

- 강수유사발간위원회(1996), 『姜水遺事』.
- 고창석(2001), 『濟州島 古文書 研究』,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남풍현(2000), 『이두연구』, 태학사.
- 오창명(1995), “노비매매문기의 이두문과 이두 형태”, 『백록어문』 11집, 백록어문학회.
- 오창명(1995), 『이두의 국어사적 연구: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세경(2001), 『이두자료 읽기 사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 제주대학교 박물관(2002), 『古文書集成』.